



“향군 정체성 훼손 더이상 용납 할수없다”

향군 개혁 매도하고 경영정상화 방해...보훈처 내부 적폐척결 요구

향군은 1월16일 국가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각종 이권 등의 비리 근절과 5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란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는 내용을 발표하여 이를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국가보훈처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향군 개혁을 매도하고 국가안보를 방해하는 보훈처 내부의 적폐·잔존세력을 척결하라”고 주장했다. <향군입장 전문 2면>

이날 전국에서 모인 향군 회원 1500여명은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

한 보훈처는 각성하라!” “보훈처 내의 잔존 적폐세력을 청산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보훈처는 향군 죽이기를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가보훈처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향군은 규탄사를 통해 “국가 제2보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1천만 향군회원들은 국가보훈처의 향군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성 발표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군은 현재 국가보훈처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처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향군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각급회의 선거도 회법과 정관 그리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감독기관으로서 향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간섭해왔고 정부정책에 대한 향군의 안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향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지지 성명광고 게재(2018. 3. 15) ▲4.27 남북정상회담 장소 환영행사(2018. 4. 27)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 라며 ‘정치행사금지’를 앞세워 공문까지 발송해 제동을 거는 등 직권 남용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민간 안보단체인 향군에 대해 인사개입, 경영간섭, 수익사업 차단 등의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보훈처의 향군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은 박근혜 보훈처장치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잔존해 있는 김OO 등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가안보는 진보·보수

의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게 향군의 확고한 안보관”이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향군은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향군회원들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결정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 지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향군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체성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성명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하고 보훈처 청사 주변을 행진하며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한·미 동맹 정신 입각, 방위비 협상 조속히 타결하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대한민국성우회(이하 성우회)는 제2차 미북정상 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 한미동맹의 실체인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어 왔다.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냈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한미 양국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한미 양국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라. 우리는 한국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담금 상한선 1조원이 올해 국방예산의 2.1%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짐은 물론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 정부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하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팽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 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분담노력을 해온 한국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 양국이 win-win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해야 할 동반자다.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훈처 '19.1.8 언론발표에 대한 향군의 입장

국가보훈처 산하 재발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각종 이권 등의 비리 근절과 5000억원의 부채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의 이런 발표를 받아 쓴 언론은 "5000억 빚더미, 재향군인회 정상운영 불능" "부실 향군, 매년 정부 눈치만 본다"라며 향군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보도를 했다. 향군의 정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정체성을 매도하고 향군이 마치 경영악화로 곧 도산될 조직인 것처럼 인식케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1952년 6·25전쟁 중 전투 지원을 위해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된 이래 대한민국 제2국가안보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1000만 향군으로서는 국가보훈처의 이런 향군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성 발표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군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향군의 정체성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과거 박○○ 보훈처장 작성,

적폐자료 잣대로 현 개혁 향군 발목잡기

국가보훈처는 발표내용에 「향군은 회장 1인 중심구조로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와 각종 이권으로 인한 부정에 취약하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취약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지난 2015년에 향군의 독자적 수익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13197호(2015.2.3.)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신설된 법안은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의 신설, 중단 폐지 및 회계감사 등 모든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향군법 4조 3~7) 하였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향군 수익사업의 독자적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실제로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후 신규 수익사업 3건을 건의했으나 이 법에 따라 100% 부결되고 말았다. 민간단체인 향군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보훈처가 장악한 직영체제와 다름없는데 또 무슨 악법을 제정한다던 말인가?

■경영정상화 가로막아 향군을 매년 부도 위기로 모는 국가보훈처

「5000억 빚더미 향군 정상운영 불가능.」이라 폄하했다.

향군의 빚은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1년말 약 7,000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향군의 기업 신용등급은 BBB로서 "상거래를 위한 신용등급이 양호하나 안정성저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군은 현재 제1금융권으로부터 담보 없이 12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등 견실하게 경영하고 있다. 급변에 향군의 재정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S저널, K신문 역시 기업신용도가 향군과 같은 BBB이다. 그들 또한 구제 불능의 기업인가?

김진호 회장은 취임 이래 향군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월여의 논의 끝에 과학적인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2018. 4.9)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101명) ▶임원 연봉 10% 삭감, 전 직원 5년간 급여 동결 ▶고비용 기업 사무실 지방 이전 (중앙고속, 향우실업 등) ▶2011년 6,961억원을 2018년말 약 5,500억원으로 줄임 ▶2020년부터 전국 240여개 도·시·군·구지회 운영비 전액 지원 중단이라는 뼈를 깎는 극약 처방을 통해 2022년까지 5,530억원 부채 중 1,254억원을 상환해 부채 규모를 4,276억원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자구노력을 적



향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향군 부회장단

극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경영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향군의 경영악화를 유도했다.

■부채감소를 명분으로 한 향군타위 매각 강요

향군타위는 현 매각 시 시가 5,500억 원으로 법인세 1,00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4,500억원의 부채 감소 예상된다. 현재 향군타위는 연 임대소득이 약 310억원으로 4,500억원의 금융부채(이자율 4%) 이자 180억원을 상환하고도 1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실속 부동산으로, 매각하는 순간 오히려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보훈처 관계관들은 모두 주먹구구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향군타위 담보대출 기한 만료로 재 대출시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기간 5년에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500억원을 담보대출로 조정함의 했는데 국가보훈처는 향군을 돕기는커녕 담보대출 승인권을 앞세워, 5년을 3년으로 하라는 등의 금리조건이 불리한 쪽으로 합의를 강요하여 부도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 당시 금융관계자들이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 중용을 해야 하는데 왜 향군을 죽이려고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로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감독기관임을 앞세워 현 개혁 향군과 소통 없이 적폐 잔존세력이 써놓은 부정확한 과거 자료에 의거, 무사안일 공무원 특유의 경영 간섭을 해 왔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신규사업 원천봉쇄

향군에서 추진하는 신규수익사업(이슬송이, VAN, 88체육관 부지개발)은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임에도 이를 원천봉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킴으로 T) 향군의 차입금 상환노력을 계속 차단하여 왔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

「국가보조금 190억원 지원 받는다(?)」

1952년 창설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온 국가 제2안보보루인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래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전국대회 개최 ▶미 트럼프 대통령 방한 (' 17.11.7) 환영행사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8.4.27)장도 환송행사 등 한미동맹과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참전용사지원, 국군장병의문,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한 국가안보활동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에 발생하는 예산을 향군법에 의해 자체 산하업체의 수익금으로 전액 집행해 왔다. 따라서 향군본회는 정부로부터 단돈 1원도 지원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가 연간 190억원 국고지원 운운함으로써 일부 언론 또는 향군 비난단체로부터 '향군의 국가안보활동이 마치 정부예산 획득을 위한 것' 처럼 매도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국가보훈처 내부 적폐세력

그대로 존속, 반드시 인적 청산해야

국가보훈처의 향군업무에 대한 직권 남용성 업무간섭 문제는 심각하다.

전 국가보훈처장 박○○은 2016년 향군회장 선거 시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임시키기 위해 1차례 선거를 연기시키고 2차례 중단시켰으며 유력한 당선 예정자 2명에게 자격 상실 징계 처분을 3~4회씩 내리는 등 법원의 직권남용 판결을 받으면서까지 선거간섭을 했고, 이때 박○○의 지침에 따라 향군의 정상화를 퇴행 시키는데 앞장섰던 제대군인 국장 김○○을 포함한 박○○ 전 국가보훈처장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향군 경영의 파행을 암암리에 주도해왔음을 향군 임직원들은 익히 알고 있다.

이들은 향군의 기본 임무인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사사건건 개입했다. 향군은 지난해 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성명서 광고를 전국 10대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국

가보훈처는 "왜 빛이 많은 향군이 이러한 예산 남용을 하는가"라고 향군정책 결정에 강력개입하고 반대한 바 있다. 이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도 환송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는 "왜! 향군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가"라며 "정치행사 금지"를 앞세운 공문까지 미리 발송해 제동을 걸었다.

■국가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향군을 탄압 말라!

국가안보 문제는 진보·보수의 이념이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는게 향군의 확고한 안보관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국가의 생존권 문제인 정부의 핵 안보정책에 대해 당연히 찬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향군은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향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방해했다. '왜! 국가보훈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향군의 안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는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여전히 박○○ 적폐 세력에 포위돼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향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부 정책에 암암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가보훈처 내 적폐 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신속한 청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안보단체다.

최근 향군이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이래 이를 반대하는 단체가 향군 본회 회관 앞은 물론 김진호 회장 자택(APT)을 에워싸고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 현수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향군 회장을 중북좌파, 여적 등으로 표현,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과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 시도 때도 없이 고성방송을 트는 극단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이들이 우리 국군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호 회장은 향군의 정부 비핵화 정책 지지에 대하여 "이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역임한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전략적 판단과 향군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정책이므로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민간단체 향군에 대한 과도한 직권남용성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는 1000만 향군의 명예와 정체성에 대한 자존심을 결연히 지키고 국민의 신뢰에 손상이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진호 회장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 취임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 될 것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진호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진호 회장이 1월25일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엑스포 조직위원을 비롯해 나소열 충남 문화체육부지사, 최홍묵 계룡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진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 문화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복합문화로서 최근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2020계룡군문화엑스포'는 평화와 국가번영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군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희망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 세계인이 인정하는 새로운 '국가브랜드 가치' ▲ 세계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엑스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군 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나소열 부지사는 "김진호 위원장의 군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조직위

원장의 활발한 활동과 역할을 기대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6·25발발 70주년을 맞아 2020년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17일간 계룡대 일대에서 개최된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충청남도가 1997년부터 유치할 준비해 온 행사로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후 2017년 9월에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 계룡시는 2007년부터 "계룡군문화축제"를 지역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19년 향군 안보교수 22명 위촉

대국민 안보제도 중추 역할 수행

향군은 1월21일 안보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 안보의식 계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안보교수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2019년 향군 안보교수들은 국방·안보분야 석·박사 출신으로 강의능력이 탁월한 우수인재들로 구성되어 향후 2년간 향군 각급회와 지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청소년, 장병,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하게 된다.

위촉된 향군 안보교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동화(예 중령 전 국방국악진흥회 전담교수) ▲김영택(예 중령 전남대 군사학 교수) ▲김성래(예 중령 전 국방정신전력원 교관) ▲김일용(예 대령 한국경제개발원 안보교수) ▲나태중(예 중령 한

장) ▲노용균(예 중령 향군안보교수) ▲박동순(예 대령 한성대 군사학 교수) ▲방호엽(예 중령 안양대 통일안보 교수) ▲박종철(예 대령 향군안보교수) ▲서정순(예 대령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 ▲손영국(예 대령 민방위안전협회 부원장) ▲이태준(예 중령 향군안보교수) ▲이현오(예 소령 전 향군 안보국 부장) ▲이상기(예 중령 향군안보교수) ▲이영석(예 중령 우석대 국방정책 교수) ▲이준희(예 대령 향군안보교수) ▲양형용(예 대위 대학교 예비군지휘관) ▲정구왕(예 중령 전 정보사 대북사업) ▲전종석(예 대령 향군안보교수) ▲정운채(예 대령 향군안보교수) ▲최윤철(예 대령 상명대 북한학 교수) ▲황기석(예 중령 경북대 군사학 교수)



새로 위촉된 2019 향군 안보교수와 김진호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회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군을 필한 일반회원이 있다. 현재 정회원은 134만 명이며 일반회원은 1,300여만 명에 이른다.

향군의 정회원 가입 확산 캠페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고 작게 이루어져 왔으며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자율 가입에서 의무 가입으로 한때 대상자 85%가 회원가입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병역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하사관 중에서 전역을 희망하는 2,000명을 1차 만기 제대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이 1952년 2월1일 향군 창설시 모체가 되었다.

향군창설 이후 회원가입은 전역장병들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1963년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으로 회원가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변경됨으로써 1972년 말에는 회원 대상자의 신고율이 85%에 달해 회원이 300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여건상 정부와 사회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향군회원들에게 예우와 복지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했

향군역사 바로알기 ⑤

향군 정회원 300만명 시대를 꿈꾸며

다. 또한 향군회법과 정관 규정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가입신고를 강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회원가입을 소홀히 관리하여 1972년에는 회원가입이 하향세를 나타냈다. 그 후 회원 관리를 강화하고 1977년부터는 종신회원제도를 추진하였으나 회원가입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1986년 말 회원 가입율은 3.36%까지 떨어져 총회원은 400만이 넘었으나 회비를 낸 종신회원은 172만 명이었다.

미완으로 끝난 정회원 200만명 확보 운동

이에 본회는 1986년 향군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각급회 전체회원의 25%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1987년까지 10월 말까지 회원 100만명을 정예화 시키고 기존의 양적 관리체계에서 질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400만 회원을 단계적으로 정예화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 박세환 장군이 33대 향군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1월 26일 "젊고 힘 있는 선진향군 건설"의 가치를 내걸고 "향군발전 1.2.3운동"을 선포하면서 다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1은 향군장학금 100억 모으기, 2는 향군 정회원 200백만 명 확보, 3은 보훈성금 300억 달성 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중 향군회원 200백만 명 확보 운동은 당시 향군회원이 800만명 중 정회원 120만명, 일반회원 680만 으로서 매년 전역하는 20만명을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과는 있었으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채 끝을 맺고 말았다.

제도 보완 복지혜택 강화 2030년 300만명 확보 목표

지난해부터 향군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회원 300만 명 모으기 운동을 준비해 왔다. 심층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에서 몇 차례 캠페인을 추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목표로 한 정회원 300만명 모으기를 반드시 성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역할과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회에서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실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중점은 ▲법규 개정 및 제도적 보완 ▲회원들의 복지혜택 강화 ▲다양한 방법을 이용 입체적 홍보 ▲각급회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두고 있다.

회원모집은 과거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보다 사회가 유리할수록 개방되고 개인의 권익이 중시되는 사회 민주화가 급진전 되면서 명분 없는 활동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공익 활동은 철저히 외면 받는 세상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안보활동과 공익활동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전역하는 장병들이 너도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그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끝

향군, 6·25전사자 신원확인 적극 나선다

각급회 조직 활용, 유가족 DNA 채취 적극 지원



향군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6·25전사자 명부를 들고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증언 확보 및 DNA 채취 절차안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향군은 "이 사업이 국가안보 제2의 보루이자 1천 300만 회원과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향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과 안보단체로 본연의 안보활동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판단 아래 큰 성과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향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진호 향군회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6·25전사자로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약 13만 3천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유가족 DNA는 4만4천여명분만 확보한 상태다. 유해 수습 전사자 1만 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131위에 불과해 유가족들의 DNA 채취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6·25참전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향군은 1월21일 "6·25전사자

유해 발굴 지원"추진 계획을 각급회에 시달하고 우선 이번 설 명절부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게 1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 DNA시료채취를 위한 최초 DNA제공자에게 10만원, 신원 확인과 심의 후 발굴 유해와 DNA가 일치할 경우 1천 만 원 포상금을 지급 등이다. 시료채취 시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형제 친·외가 8촌까지)하다.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발간 ... 국방정책 홍보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울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2018 국방백서'는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내용과 북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

히 수록했다.

본문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기조, 군사전략, 국방개혁 2.0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 기조를 담았다.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서는 우리 군의 북한 위협,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강화 노력을,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에서는 우리 군의 부대·병력·전력구조 개편과 예비군, 정보화, 군수 등 전쟁수행 기반능력 강화, 국방예산 확보

노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에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발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내용과 주변국 및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성과를,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군 사법제도 개혁, 국방 문민화와 청렴한 국방운영,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을 기술했다.

끝으로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에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 조치 사항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육군23사단 장병, 양양 산불 제압

육군23사단 장병들이 1월2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전에 나서 유관기관들과 합심해 기해년 첫날 발생한 산불을 제압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4시쯤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23사단은 UH-60 1대를 긴급 투입했으며 장병들은 등짐펌프와 소화기, 삽, 갈퀴 등을 활용한 잔불 제거 작업을 전개해 소방 전력의 화재 진압을 지원했다. 이들이 구슬땀

을 흘린 덕분에 산불은 산림 20ha를 태웠지만, 더 이상 번지지 않고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23사단은 "상황을 접수한 후 재난대응반을 즉각 가동시켜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현장 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초기에 산불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1함대 훈련전대 독거노인 찾아 봉사

해군1함대 훈련전대 부사관들이 한파가 몰아치는 구랍 12월27일 강원 동해시 송정동 일대에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찾아 홀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시설과 집을 수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일러와 난방계통 수리는 함정 기관

사관들이, 노후 전선과 전기배선은 발전기·배전반 등 전기계통을 담당하는 전기 부사관들이, 노후 지붕·파이프와 벽은 배관과 용접을 담당하는 보수 부사관들이 각각 분야별로 참여해 노후 시설들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손질됐다. 이와 함께 부대 장병들도 생활품들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공중전투사, 3년간 보육원에 위문품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공중전투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구랍 12월20일 대구시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애생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2015년 12월 애생보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공중전투사는 30여 회 넘게 방문, 장병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 보육원 시설 개선, 환경미화 등의 봉사 활동을 해왔다.

이날 부대 장병들은 과자와 음료수, 라면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의 모습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생보육원 측은 이날 3년 동안 보육원을 찾아 봉사 활동을 하고 위문품을 전달해 온 공중전투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해병대2사단, 행복 나눔 1·2·5 운동

해병대2사단 장병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봉사 활동으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예하부대 별로 ▲은빛마을 재능기부 활동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예지원 봉사 활동 ▲가연마을 봉사 활동 ▲살림원 봉사 활동 ▲성안나의 집, 바다의 별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포22대대 장병들은 지난달부터 부대 인근 은빛마을 보육원을 찾아 부대와 은빛마을

이 함께하는 제1회 시·문학 축제 '별 헤는 밤'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직접 시를 창작하기도 하고 함께 만든 시를 낭송하기도 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교동부대 장병들은 부대 인근 복지시설인 살림원을 방문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한편 해병대2사단은 한 달에 1번 선행, 2권 독서, 일일 5번의 감사를 실천하는 행복 나눔 1·2·5 운동을 진행하며 장병들의 선행 활동을 장려해 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회



회장 임창희
(예 육군 중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역향군 이끌어갈 새인물... 신임 시·군·구 회장

부산 강서구회



회장 강중부
(예 육군 하사)

부산 중·동구회



회장 성말출
(예 육군 중위/학군13)

대구 달성군회



회장 현경호
(예 육군 일병)

경기 안성시회



회장 천동현
(예 육군 하사)

강원 강릉시회



회장 박기준
(예 육군 대위/3사14)

강원 속초시회



회장 이근철
(예 육군 대위/3사 4)

강원 원주시회



회장 원유홍
(예 육군 소령/3사 8)

강원 평창군회



회장 지규태
(예 육군 병장)

충북 괴산시회



회장 이제덕
(예 육군 일병)

충북 보은군회



회장 김광일
(예 육군 병장)

충북 제천시회



회장 김영환
(예 육군 하사)

충남 당진시회



회장 배성호
(예 해병 병장)

충남 서산시회



회장 성낙서
(예 육군 병장)

충남 홍성군회



회장 이경열
(예 육군 병장)

전북 고창군회



회장 성홍제
(예 육군 소령/3사 4)

광주 남구회



회장 박춘수
(예 해병 하사)

전남 담양군회



회장 김진호
(예 육군 일병)

전남 목포시회



회장 백대중
(예 육군 상사)

전남 순천시회



회장 양동조
(예 육군 병장)

전남 함평군회



회장 김창문
(예 육군 하사)

경북 상주시회



회장 이상인
(예 육군 병장)

경북 의성군회



회장 김복수
(예 육군 중사)

경남 거제시회



회장 이주연
(예 육군 병장)

경남 양산시회



회장 이상환
(예 육군 이병)

창원기계공업공단연합부



회장 백원진
(예 육군 대령/육사40)

◆위기 극복의 침병 / 경남 거제시 향군

위기가 곧 기회, 신규 사업 찾아 재정안정 도모

유휴부지 활용 임대사업 추진 ... 태양광 임대, 운영비 절감



거제시 향군은 1월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주연 회장을 선출했다.

경남 거제시 향군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는 재정자립 우수회다.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호국성지인 거제포로수용소 앞에 오래전 회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과 보훈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인정받는 모범 단체로 평가받아왔고 이런 이유로 회원들의 위상과 사기도 매우 높다.

거제시 향군은 최근 회 운영의 중점을 친목단체 이미지 탈피와 안보단체 위상 회복에 두고 국내 최고 최대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회복을 위해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지역

공익단체의 특성상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들을 위한 보훈활동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집중하다보니 향군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거제시 향군은 포로수용소 등 지역 안보유적지와 연계한 각종 안보제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문가를 초빙한 안보강의는 물론 일선 학교와 연계한 후계세대 안보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거제시 향군은 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회관 앞 향군 소유의 유휴부지에 자리잡은 6·25 참전 기념탑을 이전하여 그 자리에 임대건물을 지어 재정 수익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포로수용소 관광객들을 감안하면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얼마 전 보수공사를 마친 6·25 참전기념탑을 이전하는 것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조직력을 집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 태양광 임대를 통한 운영비 절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를 활용하고 잉여 전력은 판매해 소소하지만 운영비에 보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김·참기를 등 지역특산물 판매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어민들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단체 재향군인회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조선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향군은 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안정성 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거제시 향군은 향후 회 조직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조직을 완성해 안보 보훈활동, 지역봉사활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거제시 향군은 제28대 이주연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이주연 회장을 중심으로 새 도약을 다짐했다. 새롭게 도약할 거제 향군의 희망 미래를 기대 본다.



거제시 향군회관

강원 고성군 향군, '나홀로 신병 면회' 호평

장병 사기진작 및 지역 이미지 제고 기여

강원도 고성군 향군이 고성군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나홀로 신병 면회'가 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성군 향군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가족, 친지 등이 신병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 나홀로 신병 면회를 추진, 올해 14차례에 걸쳐 신병 29명과 교관 및 조교 59명 등 88명에게 계급장 수여, 식사 제공, 관광지 투어, 목욕 제공 등을 실시하고 격려

했다. 면회에는 향군 임원과 여성 회원 등 모두 95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나홀로 신병 면회'에는 회원 503명이 참여해 신병 184명, 교관 및 조교 283명 등 모두 487명의 장병들을 지원했다.

고성군 향군은 앞으로 SNS 등을 활용, 행사 사진 부모와 공유하기, 나홀로 신병 자대배치 및 전역 후 관계 유지, 자료 기록유지 및 사진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향군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제10권 발간

제주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 "결코 잊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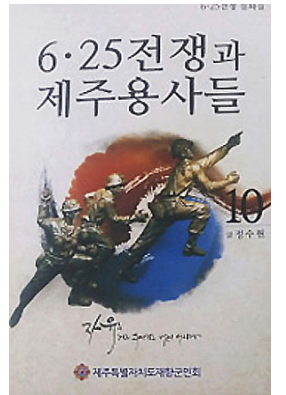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제주도 출신 호국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해 6·25 전쟁실화집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제10권을 발간했다.

6·25전쟁 실화집 시리즈는 2008년 "한라의 젊은 영웅들"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6·25전쟁과 제주용사들"이라는 주제로 매년 제주용사들이 겪은 실전의 무대를 기록하

여 왔으며 이번 제10호에서는 참전용사 25명에 대한 실화와 '6·25전쟁 연표'를 포함 발간하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축사에서 "이 책자가 6·25참전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제주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실화집은 도 내·외, 관련기관, 학교, 도서관 등 총 800부를 배포했다.



교민사회 발전위해 힘쓸 것



미 남부 향군, 신년하례식

미 남부지회(회장 이희우)는 1월6일 오후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지회장과 지회 임원단, 대의원을 비롯 미동남부 한인회 등 각 단체들을 초청하여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이희우 회장은 본회 회장님의 신년사 대독과 교민사회 단체장들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교민단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민사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 향군, 쌀 나눔 행사

보훈단체 회원 85명에 10kg씩 전달



서울 관악구 향군(회장 박봉주)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23일 관악구 보훈회관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고 보훈단체 회원 85명에게 쌀 10kg씩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보훈단체 선배님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백선호 한국 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장이 하여 더욱 훈훈하고 풍요로운 나눔 행사를 가졌다.

박봉주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

이 오늘이 있게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재향군인회 후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쌀 30포를 기부한 백선호 한국전력공사 관악동작지사장도 "보훈선배님 및 가족들을 잊지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향군,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전북 김제시 향군(회장 박영봉)은 1월23일 우리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사랑의 이웃 정 나눔' 행사를 갖고 요촌동의 추천을 받은 독거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등에 전달해 달라며, 쌀 40포대를(100만원 상당) 기탁했다.

116주년 한인의 날 행사 참가

미 동부 향군

미 동부 향군(회장 김경구)은 1월7일 Maryland 주정부 주최 미주한인의 날 1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미주한인의 날 행사는 미연방 상원에서 법령으로 승인 공포 됨에 따라 매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미우호관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안군 향군 여성회 설 맞이 사랑 나눔

전북 부안군 향군 여성회는 1월 22일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의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이웃 20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향군 우대가맹점(2019년 1월)

▲ 가맹점현업 업소현황

전국 1,453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 CN천년웨딩홀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08) 032-546-5600 : 20%

• FL솔루션 (서울시 송파구 백재고분로40길 35-15) 02-749-0615 : 1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53) 02-2197-4200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부산미주치과병원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114) 051-555-5123 : 17~22%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차령동 1185) 062-232-2875 : 20~40%

• 스마트치과의원 범어점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053-712-9999 : 15~30%

• 스마트치과의원 서부점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 053-653-9999 : 15~30%

• 위플린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인천마디병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04) 1644-8344 : 2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경제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시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안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 청룡해운관광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3길 13) 041-352-6862 : 20%

기타

• 국민요양병원경제식당 (울산시 남구 아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랑프리안경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62) 032-426-9177 : 20~3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삼촌네타이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182) 041-567-8419 : 10%

• 성지삼계탕 (강원도 홍천군 흥천읍 흥천로 409-1) 033-435-9339 : 10%

• 안양장례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주)북의정부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9) 031-878-100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청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진북로 153) 043-241-6464 : 10%

각급회 소식

(12월21일 ~ 1월20일)

부산시 향군

기장군회 : 여성회는 구립 12월21일 '제5회 6.25참전유공자 중 독거회원 반찬나누기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종류의 반찬을 만들어 독거회원들에게 전달.



북 사상구회 : 1월11일 일일호프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쌀 400kg를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괴법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대구시 향군



서구회 : 여성회는 1월7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서구 평리3동회 여성회는 구립 12월27일 서구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월4일 2019년도 시무식 및 신년 인사회를 실시하고 전국 시·도회의의 모범과 표준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다짐.

남동구회 : 1월1일 인천수봉공원 내 현충탑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기관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

계양구회 : 12월23일에 천년부패에서 송년회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 다짐.

강화군회 : 구립 12월27일 해병 2사단 제3167부대장이 취임식 참석.

부평구회 : 구립 12월31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현장 방문, 봉사활동 실시.

경기도 향군

부천시회 : 1월8일 향군 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 화합과 친목도모. 1월10일 여성회 신년인사회 개최.

수원시회 : 구립 12월21일 '유정장어'에

서 창설 제58돌 기념행사 및 송년회 개최



과천시회 : 1월14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과천시장을 맞아 향군회원 권익 사업, 안보 활동 등 현안 업무 논의.

강원도 향군



태백시회 : 여성회는 1월5일 태백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점심봉사 활동 전개.



고성군 거진읍회 : 태극기 시범도로인 거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구간에 태극기 40개를 게양.

충청북도 향군



음성군회 : 구립 12월21일 하나로 한우촌에서 향군 임직원, 기관장, 호국보훈안보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개최.

대전 충남 향군



공주시회 : 1월16일 육군 제3585부대 장병들과 2019 겨울공주 군밤축제의 성공개회를 위해 축제 행사장 및 공주한옥마을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여성회는 1월2일 덕진노인복

지관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배식 봉사활동.



익산시회 : 구립 12월2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간 동안 운영한 국화빵 판매부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전기밥솥 16대를 구입,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

남원시회 : 1월3일 신년을 맞이하여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2019년 사업계획 논의.

군산시회 : 구립 12월27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를 방문, 신임 전대장과 면담을 갖고 회 활동 홍보 및 업무 유대강화 방안 논의.

순창군회 : 구립 12월27일 육군 7733부대장이 취임식에 참석.

무주군회 : 구립 12월27일 회원,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천지가든에서 송년회 개최.

부안군회 : 구립 12월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는 함께 만드는 거야'를 주제로 한 평화 공감 통일 토크 행사에 참석.

장수군회 : 구립 12월21일 농협강당에서 탈북 강사 최성경 교수를 초청하여 현 북한의 실상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임실군회 : 구립 12월21일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원, 군민등을 대상으로 장기수 안보교수를 초빙, 안보교육. 1월4일 임실호국원을 찾아 신년참배.

광주 전남 향군



함평군회 : 구립 12월22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점심시간 배식봉사.

곡성군회 : 구립 12월29일 불우회원 5명에게 연말을 맞아 위문품 전달.

해남군 계곡면회 : 구립 12월24일 계곡면사무소에서 관내거주 6.25참전용사 25명 전원에게 이불 증정.

경상북도 향군

문경시회 : 여성회는 1월16일 문경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음식배식 봉사활동.

영천시회 : 1월3일 안보보훈단체장들과 함께 마천산 충혼탑 참배.

상주시회 : 여성회는 구립 12월26일 냉림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싸기,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

경주시 동천동회 : 구립 12월27일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위기가정 5가구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쌀, 화장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



영주시회 : 구립 12월31일 육군 제3260부대에서 열린 3세대·4세대 부대통합 행사 참석. 12월21일 연대장 진현찬 대령 취임식 참석. 1월 4일 양정배 신임 부시장 방문, 환담.

영덕군회 : 1월2일 신년교례회를 갖고 '향군변화와 혁신, 정회원 300만 프로젝트'를 주제로 안보강연 실시.

예천군회 : 구립 12월31일 임직원 안보교육 및 간담회를 갖고 회원화합 다져.

경남 울산 향군



통영시회 : 구립 12월24일 향군회관에서 6.25참전유공자회원 45명을 초청, 위로행사를 갖고 선물 증정.

양산시회 : 이상환 회장이 1월20일 양산시 교육지원청 안보교육 사업 공모전에서 양산시교육청장 표창수상.

함안군회 : 구립 12월21일 송년갈비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개최.



고성군 회화면회 : 여성회는 1월16일 회화면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20박스 기탁.

울산 남구회 : 구립 12월21일 제7765부대 3세대 연병장에서 거행된 대대장이 취임식 참석.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월17일 향군을 방문한 조영수 해병대 9여단장을 맞아 안보현안 논의.

‘추모의 벽’ 건립 성금 4억원 돌파

각계 성금답지, 기대이상 성과 3월31일까지 모금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이 모금을 시작한지 3개월만인 1월14일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15일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동안 6.25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90노병들의 모임인 육종회, 50동우회, 갑종장교전우회 등을 비롯해 51개 단체가 향군에 성금을 기탁했으며 향군 각급회, 해외지회, 산하업체, 일반기업 등도 적극 모금에 동참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상돈 국회의원, 뽀빠이 이상용, 신수지씨를

비롯한 주요인사와 일반시민 5백여명도 모금에 참여,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리는 뜻있는 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3억원을 돌파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연말연시를 보내며 모금이 좀 뜸했으나 이후 부산시 향군 1천590만원, 월남참전경기도지부 465만원, 국군간호사관동문회 379만원, 학군2기 학목회 315만원, 대령연합회 250만원, 육군예비사관학교 198만원 등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고 특히 해리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안보강연료 63만5천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 1000만원, 하나은행 1000만원, 고대 ROTC교우회 200만원, 한일시멘트 허동섭 회장 100만원, 농협 100만원, 광주은행 100만원, 이정순씨 20만원, 김태국 대령, 김을수 대령, 최기영 대령, 김지해병중사, 조원영 육사생도 등 기업체와 단체, 일반시민들의 성금기탁도 줄을 이었다.

향군은 오는 3월31일까지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모금된 전액을 ‘추모의 벽’ 건립 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198만원을 기탁한 육군예비사관학교 참전노병들.

아름다운 나눔·의미있는 실천... ‘추모의 벽’ 모금 열기 후끈

□총 누적 금액 : 422,418,183원

□향군본부 임직원 : 16,192,000원

□향군 산하업체 : 23,650,500원 (주)통일전망대 2,100,000원,

□향군 각급회 : 241,972,693원

서울시회 - 서울시회 4,294,000원, 송파구회 윤용식 5,000원, 지정수 50,000원, 민병설 10,000원, 임헌남 10,000원, 서정만 10,000원, 강명원 10,000원, 중랑구회 방홍상 50,000원, 이천혁 50,000원, 김대생 500,000원, 김종수 50,000원, 박인철 50,000원, 안현태 50,000원, 박영찬 50,000원, 노관수 50,000원, 주지혜 50,000원, 중랑구여성회 150,000원, 서울시여성회 이동 500,000원, 종로구회 유연우 20,000원, 최평전 10,000원, 김정평 10,000원, 강영호 10,000원, 이은행 10,000원, 박종진 10,000원, 임희술 10,000원, 정영구 10,000원, 최석도 10,000원, 안익호 10,000원, 서초구회 110,000원, 영등포구회 황태연 150,000원, 류결하 50,000원, 이고영 50,000원, 강동구 50,000원, 권홍재 50,000원, 정치현 50,000원, 권영하 20,000원, 최재웅 20,000원, 조문행 20,000원, 심상우 20,000원, 최용제 20,000원, 윤선길 20,000원, 정송환 20,000원, 이정호 20,000원, 이연재 20,000원, 장병조 20,000원, 조해동 20,000원, 황희운 20,000원, 심언조 20,000원, 송관선 20,000원, 김원희 20,000원, 최정윤 20,000원, 강호운 20,000원, 허승교 20,000원, 김순제 20,000원, 류영덕 20,000원, 안중건 20,000원, 백진규 20,000원, 엄주택 20,000원, 정춘웅 20,000원, 오문진 20,000원, 박성학 20,000원, 박남일 20,000원, 김덕중 20,000원, 강태종 20,000원, 차중환 20,000원, 고현순 10,000원, 이상수 20,000원, 김광표 20,000원, 강용배 10,000원, 조영길 10,000원, 이득원 10,000원, 신대영 10,000원, 김형복 10,000원, 김인배 10,000원, 유복환 10,000원, 주영수 20,000원, 홍희복 20,000원, 오순달 20,000원, 최문선 50,000원, 김복희 20,000원,

‘추모의 벽’ 건립 성금 기탁자 명단

(2018. 12. 24 ~ 2019. 1. 24)

최정숙 20,000원, 강미화 20,000원, 김인숙 20,000원, 김갑진 10,000원, 정동숙 10,000원, 박정순 10,000원, 강남구회 및 무공수훈자회 일동 200,000원, 동작구 이진택회장 일동 829,000원, 서울시회 100,000원, 서울시회 1,990,000원, 부산시회 - 부산시회 15,933,000원, 가평군회 - 김기정 50,000원, 심재호 10,000원, 홍종민 10,000원, 강병욱 10,000원, 이경호 10,000원, 오태환 10,000원, 김학만 10,000원, 강창우 10,000원, 모유선 30,000원, 과천시회 - 과천시회 45,000원, 오학균 10,000원, 이순형 10,000원, 우동성 30,000원, 황인중 10,000원, 박성배 10,000원, 민정기 10,000원, 변영목 10,000원, 구리시회 - 조영호 100,000원, 남양주시회 - 장성민 30,000원, 신야균 50,000원, 조현기 20,000원, 김홍여 10,000원, 홍향숙 10,000원, 이재용 10,000원, 김정옥 10,000원, 오현자 10,000원, 박부순 10,000원, 김인에 10,000원, 김재근 10,000원, 김성천 10,000원, 송윤호 10,000원, 최원태 10,000원, 김승덕 10,000원, 이천시회 - 이천시회 325,000원, 최복순 10,000원, 박성만 20,000원, 최영조 30,000원, 박광선 10,000원, 정상배 10,000원, 오형선 10,000원, 김명자 50,000원, 김장수 20,000원, 김정진 50,000원, 김정호 5,000원, 정명철 30,000원, 이녹희 10,000원, 김상희 10,000원, 강옥순 30,000원, 홍상표 30,000원, 용인시회 - 김제진 50,000원, 심재호 10,000원, 홍종민 10,000원, 강병욱 10,000원, 이경호 10,000원, 오태환 10,000원, 김학만 10,000원, 강창우 10,000원, 모유선 30,000원, 연천군회 - 연천군회 300,000원, 연천군여성회 150,000원, 의정부시회 - 최종팔 150,000원, 박용준 10,000원, 김을재 10,000원, 이유한 10,000원,

박문산 10,000원, 박원서 10,000원, 신재연 10,000원, 정명철 50,000원, 강상준 20,000원, 고훈서 10,000원, 임동창 50,000원, 홍선표 20,000원, 송명원 10,000원, 강영봉 20,000원, 구명윤 20,000원, 하서준 30,000원, 김춘경 20,000원, 현용산 50,000원, 이상욱 20,000원, 유명자 20,000원, 유명옥 10,000원, 안은숙 10,000원, 김선순 10,000원, 유재현 10,000원, 김미라 10,000원, 오옥생 10,000원, 과주시회 - 임승근 20,000원, 문산읍회 100,000원, 유명숙 50,000원, 이희중 200,000원, 과주시 송년회 행사시 160,000원, 박옥임 10,000원, 서영옥 5,000원, 서영순 20,000원, 이효숙 20,000원, 김숙자 10,000원, 나정분 10,000원, 강윤원 10,000원, 교하동회 일동 100,000원, 김종화 5,000원, 평택시회 - 평택시회 고덕면회 130,000원, 통복동회 200,000원, 포천시회 - 박춘원 50,000원, 이순휘 50,000원, 최영호 50,000원, 홍천기 50,000원, 박선철 50,000원, 이공수 50,000원, 고재운 50,000원, 이희민 50,000원, 강희원 50,000원, 박권빈 50,000원, 정윤교 50,000원, 유민곤 50,000원, 강원도회 - 권동용 500,000원, 권태희 100,000원, 평창군회 300,000원, 속초시회 서승대 100,000원, 지광환 10,000원, 진수호 10,000원, 이종학 10,000원, 손영운 10,000원, 한장이 10,000원, 김영환 10,000원, 김경주 10,000원, 곽철신 10,000원, 원연구 10,000원, 박기도 10,000원, 임명식 10,000원, 김하규 10,000원, 최주영 10,000원, 김인숙 10,000원, 김연희 10,000원, 이미순 10,000원, 김성인 10,000원, 황미정 10,000원, 사공숙 10,000원, 이경숙 10,000원, 김혜옥 10,000원, 최혜련 30,000원, 박성옥 50,000원, 신동희 10,000원, 이경숙 10,000원, 박계화 10,000원, 황매자 10,000원, 유애란 10,000원, 박현옥 10,000원,

안미정 10,000원, 삼척시회 이용구 100,000원, 방순광 100,000원, 최영철 20,000원, 김상수 20,000원, 김순강 20,000원, 김상국 10,000원, 정용순 10,000원, 김원하 10,000원, 유재용 20,000원, 정백순 10,000원, 이영목 20,000원, 이성우 20,000원, 최만호 50,000원, 박명철 30,000원, 백도현 50,000원, 이상수 30,000원, 이천식 30,000원, 김원근 10,000원, 김경영 10,000원, 심정섭 10,000원, 정연경 10,000원, 정의훈 10,000원, 정의용 10,000원, 정연철 10,000원, 김형철 10,000원, 이종필 10,000원, 윤상병 10,000원, 김원학 10,000원, 김억연 10,000원, 노상태 30,000원, 전국제 30,000원, 김삼섭 30,000원, 민남기 30,000원, 천호갑 30,000원, 정경자 10,000원, 이시화 10,000원, 김선옥 10,000원, 장후선 10,000원, 송혜숙 10,000원, 진계숙 10,000원, 김민자 10,000원, 김해순 10,000원, 남정자 10,000원, 나춘자 10,000원, 이순정 10,000원, 윤숙희 10,000원, 이정화 10,000원, 신애란 10,000원, 이연자 10,000원, 임옥자 10,000원, 이영자 10,000원, 조혜정 10,000원, 철원군회 이현위 1,000,000원, 철원군 동송읍회 50,000원, 철원읍회 50,000원, 갈말읍회 50,000원, 서면회 50,000원, 김화읍회 50,000원, 근남면회 50,000원, 철원군여성회 100,000원, 철원군 이사회 100,000원, 이사친목회 300,000원, 공충의 50,000원, 조문배 50,000원, 장인규 50,000원, 오재복 50,000원, 강릉시회 600,000원, 양양군회 300,000원, 동해시회 500,000원, 고성군회 500,000원,

인천시회 - 인천시회 한정석 50,000원, 신상진 50,000원, 이성환 50,000원, 김병환 50,000원, 조미란 10,000원, 김정원 10,000원, 김동제 100,000원, 이종철 50,000원, 김재원 50,000원, 김용희 30,000원, 박영규 100,000원, 인천시이사회 500,000원, 인천시여성회 500,000원, 서구이사회 1,000,000원, 서구여성회 200,000원, 서구검단동회 200,000원, 남동구이사회 500,000원, 남동구여성회 400,000원, 남동구 동회장단 300,000원, 동구

<9면에서 계속>

<8면에 이어>
회 200,000원, 중구회 50,000원, 김재철 100,000원, 지근수 50,000원 이영철 50,000원, 이광만 50,000원, 양동은 50,000원, 송영수 50,000원, 김식길 50,000원, 정진 50,000원, 김영수 50,000원, 박창현 30,000원, 이영재 20,000원, 김연옥 20,000원, 계양구이사회 500,000원, 계양구동회장단 200,000원, 신정자 100,000원, 명갑석 50,000원, 윤형선 50,000원, 정동훈 50,000원, 양승목 50,000원, 연수구이사회 800,000원, 연수구역성회 200,000원, 부평구회 김원희 100,000원, 진달범 20,000원, 장도경 20,000원, 김주창 20,000원, 배연석 20,000원, 김기원 20,000원, 정동섭 20,000원, 서종석 20,000원, 조성준 20,000원, 김도민 20,000원, 김동길 20,000원, 김철 20,000원, 김영주 20,000원, 이종열 20,000원, 정철호 20,000원, 최치용 20,000원, 김유암 30,000원, 이해경 30,000원, 윤예용 10,000원, 주승돈 30,000원, 김정식 10,000원, 박찬규 10,000원, 김충복 30,000원, 한희수 10,000원, 강경찬 10,000원, 권택 10,000원, 전희성 30,000원, 이기수 10,000원, 최정욱 10,000원, 박기수 10,000원, 김효준 10,000원, 최병문 10,000원, 엄용배 30,000원, 우성택 10,000원, 부평구역성회 박레신 50,000원, 조선자 30,000원, 흥귀임 20,000원, 이유순 20,000원, 김선자 20,000원, 박순희 20,000원, 김순남 10,000원, 이정희 10,000원, 김성수 10,000원, 김영순 10,000원, 모옥순 10,000원, 이정숙 10,000원, 권영심 10,000원, 이덕순 10,000원, 정숙주 10,000원, 한수연 10,000원, 이수선 10,000원, 고상숙 10,000원, 방지영 10,000원, 김옥녀 10,000원, 용진군회 김철 50,000원, 김철호 50,000원, 서구회 조인환 50,000원, 김무웅 50,000원, 강화군회 권오경 10,000원, 조상현 10,000원, 심용 10,000원, 판덕재 10,000원, 최흥엽 10,000원, 강영신 10,000원, 황광하 10,000원, 한규남 10,000원, 김필권 10,000원, 전상일 10,000원, 박용철 10,000원, 박병일 10,000원, 이대규 10,000원, 김명선 10,000원, 최충남 10,000원, 신득상 50,000원, 이강학 100,000원, 이인현 10,000원, 이순복 10,000원, 노은미 10,000원, 전수진 10,000원, 박신자 10,000원, 김한수 10,000원, 김준일 10,000원, 민정희 10,000원, 백용연 10,000원, 김남순 50,000원, 인천시회 공군부회장 최홍주 100,000원, 총무이사 50,000원, 충북도회 - 단양군회 300,000원, 보은군여

성회 100,000원, 청주시회 유근상 50,000원, 이미영 50,000원, 김영수 100,000원, 전상부 200,000원, 한중구 12,000원, 청주문의면회 100,000원, 청주북이면회 200,000원, 청주안보협의회 100,000원, 옥천군회 홍성권 136,000원, 옥천군회 이규익 36,000원, 한은수 36,000원, 임종갑 36,000원, 황동연 36,000원, 오종진 30,000원, 전명하 30,000원, 양윤희 30,000원, 박효영 30,000원, 서민 30,000원, 유기도 30,000원, 고내찬 30,000원, 염진동 30,000원, 진일선 30,000원, 전현호 30,000원, 금유신 30,000원, 박세원 30,000원, 이규화 30,000원, 대전·충남도회 - 계룡시회 50,000원, 대전 중구회 35,000원, 부여군회 1,100,000원, 논산시회 30,000원, 대구시회 - 중구이사회일동 300,000원, 북구 침산2동회 30,000원, 북구 침산3동회 100,000원, 북구이사회 100,000원, 북구관문동회 100,000원, 북구칠성동회 100,000원, 달서구이사회 300,000원, 서구이사회 200,000원, 달성군회 이흥국 50,000원, 박일규 50,000원, 김명수 50,000원, 김선태 50,000원, 김봉환 30,000원, 서윤섭 30,000원, 김숙년 30,000원, 권수연 30,000원, 제현주 30,000원, 이애숙 30,000원, 김희기 30,000원, 김정숙 30,000원, 하순자 30,000원, 백순기 30,000원, 수성구회 400,000원, 경북도회 - 문경/영선면회 300,000원, 청송군 여성회 170,000원, 고령군회 최화분 100,000원, 이나경 86,000원, 안동시이사회 300,000원, 의성군회 400,000원, 울릉군회 500,000원, 성주군회 김수준 100,000원, 김학종 40,000원, 배우호 20,000원, 김정호 20,000원, 배천수 20,000원, 도갑수 50,000원, 이점순 100,000원, 허정미 50,000원, 정경욱 30,000원, 최윤선 20,000원, 여미옥 20,000원, 하순남 20,000원, 권말련 10,000원, 영주시회 600,000원, 안봉현 10,000원, 권오진 10,000원, 권오현 10,000원, 김천시이사회 1,000,000원, 경산시회 최재호 300,000원, 황승위 50,000원, 현응채 50,000원, 김종근 50,000원, 채종호 50,000원, 방영택 50,000원, 박선미 50,200원, 배수용 100,000원, 박종길 100,000원, 경산시 여성회 정봉두 50,000원, 이정희 50,000원, 조말순 100,000원, 포항우창동회 200,000원, 청송군이사회 480,000원, 봉화군회 정식 300,000원, 심태섭 50,000원, 양명길 50,000원, 김기찬 50,000원, 천규옥 50,000원, 이태봉 50,000원, 김동호 50,000원, 이경호 50,000원, 김성수 50,000원, 박현국 50,000원, 안순양 50,000원, 엄경찬 50,000원, 이원부 20,000원, 이영호 50,000원, 심영식 50,000원, 봉화군여성회 50,000원, 봉화군청년단 100,000원, 경남·울산시회 - 사천시회 이광섭 1,000,000원, 경남여성회 1,000,000원, 합천군회 800,000원, 함안군이사회 600,000원, 창원 의창상산구회 1,000,000원, 진주시회 성기화 100,000원, 신철호 100,000원, 양운재 30,000원, 진주시여성회 300,000원, 진해 황순구 240,000원, 창원공단직장연합분회 200,000원, 울산동구회 정상배 20,000원, 의령군회 김정수 230,000원, 광주전남도회 - 나주시회 김경근 100,000원, 이도형 50,000원, 나주읍면동회 200,000원, 나주시회 이도형 50,000원, 장흥군회 윤년희 50,000원, 제주도회 - 제주도회 2,100,000원, □ 참전친목단체/유관단체 : 38,384,925원 육군예비사관학교 1,980,000원, 월남전참전자회고성군지회 300,000원, 속초시6.25참전유공자회 김해룡 10,000원, 이성복 10,000원, 박상노 10,000원, 최남진 10,000원, 김휘철 10,000원, 박현근 10,000원,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120,000원, 월남참전도봉구지회 78,505원, 월남참전성동구지회 100,000원, 황옥경(국간사동문회) 3,790,000원, 월남참전경기도지부 4,654,520원, 6.25참전마산지회 70,000원, 월남참전강릉시회 286,000원, 인제군월남 171,000원, 대한민국해군동지회 430,000원, 청주보훈단체 100,000원, 청주시 6.25회 류승갑 50,000원, 한상희 50,000원, 송연순 50,000원, 채형근 50,000원, 정성호 50,000원, 연병권 50,000원, 신재순 30,000원, 김용덕 20,000원, 박황규 20,000원, 이선세 20,000원, 서종석 20,000원, 이태근 20,000원, 반귀록 10,000원, 장경식 10,000원, 이경희 10,000원, 정태모 10,000원, 김종준 10,000원, 이화영 10,000원, 이관영 10,000원, 김경연 10,000원, 박호순 10,000원, 남상현 10,000원, 홍종필 10,000원, 민태기 10,000원, 유경윤 10,000원, 윤태덕 10,000원, 육학수 10,000원, 오병남 10,000원, 홍성문 10,000원, 정태현 10,000원, 전철하 10,000원, 정기호 10,000원, 김재식 10,000원, 한인철 10,000원, 박한규 10,000원, 김정복 10,000원, 김진식 10,000원, 박만국 10,000원, 전일동 10,000원, 임용기 10,000원, 최완규 10,000원, 박용춘 10,000원, 박문규 10,000원, 신찬용 10,000원, 고제윤 10,000원, 정은호 10,000원, 윤억춘 10,000원, 강성희 10,000원, 김재택 10,000원, 노형우 10,000원, 박운학 10,000원, 김창중 10,000원, 나병태 10,000원, 김규석 10,000원, 홍종희 10,000원, 박노홍 10,000원, 홍성훈 10,000원, 조필희 10,000원, 정주환 10,000원, 김천산 10,000원, 오좌균 10,000원, 강용길 5,000원, 고영구 10,000원, 김상영 10,000원, 이길세 10,000원, 김만복 10,000원, 도성일 10,000원, 이영호 10,000원, 장수창 10,000원, 김연승 10,000원, 이기섭 10,000원, 김쾌진 10,000원, □ 기업/일반회원 : 102,218,065원 (취)하나은행 10,000,000원,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10,000,000원, 국민은행 10,000,000원, ROTC 2기 학록회 3,150,000원(운영비 500,000원, 권욱달 50,000원, 김양전 100,000원, 김완근 100,000원, 김재오 100,000원, 박중석 50,000원, 박형호 100,000원, 변종근 50,000원, 서창식 200,000원, 안인창 100,000원, 윤경택 50,000원, 윤기완 200,000원, 이강해 100,000원, 이대웅 50,000원, 이무용 100,000원, 이민홍 100,000원, 임종래 100,000원, 조우팔 100,000원, 차병호 100,000원, 홍성봉 100,000원, 김동휴 100,000원, 봉철수 100,000원, 배용재 100,000원, 임기선 100,000원, 가광현 50,000원, 김성식 100,000원, 양승권 100,000원, 이종하 100,000원, 정창운 50,000원), 임재풍(고대 ROTC 교우회) 2,000,000원, 강태양 10,000원, 유혁수 100,000원, 이현위 1,000,000원, 김태국 대령 50,000원, 해리해리스 635,120원, 허동섭 1,000,000원, 한준희 100,000원, 박광옥 162,000원, 김영호 10,000원, 송기학 10,000원, 김태기 해군 20,000원, 31사단소령 이정호 30,000원, 이영기 50,000원, 구형모 50,000원, 박지성 50,000원, 김태운 20,000원, 해군대령 최기영 30,000원, 배영준 100,000원, 302기무부대장 김태국 50,000원, 박형원 100,000원, 정유진 16,000원, 최현영 20,000원, 대령 안다상 50,000원, 이진호 3사23기 50,000원, 배종혁 10,000원, 오창보 100,000원, 김성갑 20,000원, 조선수 30,000원, 문성묵 100,000원, 한상현 50,000원, 유영국 30,000원, 김재희광운 151,220원, 유문근 10,000원, 이민호 50,000원, 문병구 20,000원,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보내주세요

■ 2019. 3. 31까지 ■ 향군 정회원, 현역장병, 기업, 단체, 전국민 대상



추모의 벽
건립 예정 현장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벽'을 건립하여 70여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 6천명 카투스 8천명의 이름을 새겨 넣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뜻깊은 사업인 건립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추모의 벽' 재단에 전달됩니다.

모금 계좌 안내

우리 1006-701-488707

국민 801737-04-010172

농협 317-0015-2392-71

•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의 : (02) 417-588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친목단체 활동

국립현충원 참배



성우회(회장 유삼남)는 1월2일 신년을 맞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참배행사를 가졌다.

신년교례회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진철훈)는 1월4일 서울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반포원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전국총회



JSA관문점전우회(회장 신학수)는 1월19일 대전에서 2019년 전국총회 및 지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신년임원회의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성진)는 1월11일 양주골회관에서 신년 임원회의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병기동우회(회장 정명구)는 1월17일 국방컨벤션에서 제34차 정기총회 및 정명구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년하례회



수송동우회(회장 장동명)는 1월10일 육군회관에서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육군예비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김면중)는 1월18일 종로국일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국립현충원 참배



포병전우회 (회장 이국범)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10일 국립 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정기총회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회장 박충암)는 1월18일 황해도민회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모역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EMORIAL PARK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Veteran's
Sacrifice and Dedication to our Nation.

분양상담
(분당추모공원'휴')
031-762-3000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휴'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안장대상

- 향군임직원 및 향군회원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 안보·친목단체 회원 ·재향군인회 상조회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안장 및 의전행사 지원

▲아외봉안담 3,000기

▲수목장지(소나무) 89주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재향군인회상조회 1577-0720 / 02-2218-7141

홈페이지 www.korvafamily.com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갑종장교전우회** : 2월12일 군인공 제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
- ▶ **정보동우회** : 2월13일 서울대공원 에서 자연보호활동. 2월27일 일품 현에서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
- ▶ **포병전우회** : 2월14일 양재 시민의 숲에서 자연보호활동
- ▶ **정보통신장교전우회** : 2월21일 전 쟁기념관에서 정기총회
- ▶ **헌병전우회** : 2월22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 **인사행정동우회** : 2월22일 전쟁기념관에서 정기총회
- ▶ **성우회** : 2월26일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 **해병대전우회** : 2월28일 덕산스포 텔에서 정기총회
- ▶ **백마고지참전전우회** : 2월28일 제 기동 동사무소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손목 저림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조기치료 중요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부위의 뼈와 인 대로 이루어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 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 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되어 발생 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증상

엄지와 요측 손가락이 밤마다 아프고 감각이 무뎠으며 저린 증상이 주로 나타 난다. 손목의 굴곡 혹은 신전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 으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엄지, 검지, 중 지 전체와 환지 요측 부의 저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엄지근육의 쇠약 및 위축 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

원인은 대부분 불분명하다. 드물게 결

절종, 혈관종 또는 종양근 근위부에서 나 타나는 구조적인 이상이 수근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신부전,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 절염,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동반 시 발 병 가능성이 높으며 임신 3기 여성들의 45%에서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 지만 대개 출산 후 사라진다.

직업과의 관계는, 진동 기구 작업공 이 외에는 유의 있게 연관성을 연결 짓기 어 렵다.

치료방법

초기 치료로는 무엇보다도 손목 사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밤에 잘 때에 손목 보조기를 착용 한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상기 부목(보조기) 고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외 손목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투약 부작용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외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도 시행해 볼 수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상기 보존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수술적 치료 는 관혈적(open) 방법과 관절경적(endoscopic) 방법이 모두 가능하며 둘 사이에 치료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예방법

신부전,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동반시 잘 발생하 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손목의 과사용 과 연관된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므로 과 도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여행정보

2월에 가볼만한 곳

전우여! 어디에 ...

• 1201건공단과 1113야공단 701중장비 중 대를 78년 2월에 전역한 손석호씨가 1975년 부터 1979년까지 같이 근무하던 옛 전우 박 상원, 문길현, 배하식 동기와 선후배들을 찾 습니다. <손석호 010-4130-6815>

• 손수익씨가 1984년부터 1987년 논산 훈 련소에서 포천이동 5군단 105 통신단 수송부 자대까지 같이 생활하던 전우 황창곤씨를 찾고 있습니다. <손수익 010-3521-2922>

• 이보구씨의 부친이 논산에서 훈련을 같 이한 전우들과 조교, 의무장교를 찾고 있 습니다. 이보구씨의 부친인 이래정씨는 1957년 8월22일 논산 제2훈련소 제22연대로 입소했 으며 군번은 0205599번입니다. 이래정씨는 당시 수류탄투척 훈련 중 동료 훈련병의 실 수로 과편상을 당했고 자신을 치료하고 돌 봐 준 의무장교와 조교들을 만나고 싶어 합 니다. <이보구 010-5409-0766>

• 연화봉 통신중계소 안동 단말, 영주 단 말에서 근무했던 중사 김부종씨가 1969년 영 주 극초단과 통신 중대 근무했던 하사 전문 선씨와 김하사(육군통신학교소년병출신7~8 기생)를 찾고 있습니다. <김부종 010-7472-7776>

제주 탐라국 입춘굿놀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통 축제 중 하나인 탐라국 입춘굿놀이가 2월2일부터 4일까지 제주시 목관아 일대에서 열린다. 탐라국 입 춘굿놀이는 제주목사를 비롯한 관리들과 무 당들이 봄을 맞이하며 한 일종의 굿놀이에 서 전래된 축제로 봄이 시작되는 2월 한 해 농사가 풍년이기를 기원하는 풍년제이기도 하다. 제주의 대표 봄맞이 굿놀이로서 날짜 에 따라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으로 꾸며지 고 굿놀이 주변에서 열리는 입춘맞이 참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탐라시대부 터 이어져온 제주의 유일한 전통문화 축제' 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758-0331>

강화도 빙어, 송어 축제 2019

강화군 내가면 고천마을 주민과 신선저수 지 내수면 어업계에서 주최하는 겨울철 빙 어, 송어낚시 행사가 2월24일까지 열린다.

신선저수지는 봄이면 고려산 진달래축제로 널리 알려진 고려산 계곡에 자리잡고 있 으며 주변 경관이 빼어나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마을주민이 합심하여 7년째 이

어온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주요행사로 얼음 위 빙어낚시, 얼음 위 송어낚시, 수상 잔교 빙어낚시, 수상 잔교 송 어낚시 등이며 어린이 빙어 맨손잡기, 얼음 썰매, 눈썰매 타기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홈페이지http://www.ssfestival.co.kr 신 선저수지어업계>

청평 얼음꽃축제 2019

북한강 지류인 조종천 하류를 막아 얇고 넓은 우수지를 만든 이곳 청평 얼음꽃 축제 장은 서울 근교의 유원지로 오랜 전통을 가 진 곳이다. 봄, 여름 철이면 물살이 완만해 수 영 및 보트놀이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곳이며 겨울철이면 호명산 줄기 산자락에 얼음꽃이 피어나 연인들 및 가족이 나들이를 하며 썰매 타기, 얼음꽃 포토존을 이용하기 에 안성맞춤이다. 그 아래 얼음 위에서는 구 명을 뿜어 송어낚시를 하여 즉석 회, 송어구 이등 시식을 통한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 는 곳이다. 또한 주변에 체험코스로서 중앙 내수면 연구소의 철갑상어, 비단잉어, 향어, 백련어, 초어 등의 민물고기 양식 모습을 무 료로 관람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청평얼음꽃축제위원회 031-585-9449>



탐라국 입춘굿놀이



빙어, 송어 축제 2019



얼음꽃축제 2019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8.11월 28일 ~ '19.1월 27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기업

- KB국민은행 1,000(19,000)

▶ 개인

- 산하업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20(90)
- 충남 논산시재향군인회여성회

고문 한순이 10(75)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2(13)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2(31)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2(31)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미래 2(28)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4(20)
- ▶ 정기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억 3(204)
- 일반회원 이정호 2(252)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2(42)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 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세 브리핑 2019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2017년 전쟁 위협의 먹구름으로 뒤덮인 채 추운 겨울을 맞았던 한반도는 2018년 1월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남·북한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핵심인 미·북 관계가 6.12 정상회담 이후 그 이행과정에서 삐걱거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고 최근 2월말에 2차 정상회담을 예고하면서 해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올해 안보정세를 전망해 본다.

세계 안보정세

먼저 세계정세의 전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다자주의의 약화가 예상되는데 미·중 영향력 경쟁의 심화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시대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큰 폭의 국방비 증액 등,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한다는 대전략 하에 신흥 대국관계, 신안보관, 일대일로 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역내 질서창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에는 자국중심의 범세계적 민족주의가 강화될 전망으로 향후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리더십 약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란 발 중동 불안 정성으로 인한 범지구적인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등 해협을 차단할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예멘의 내전 및 대규모 기근으로 중동 및 유럽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안보정세

다음은 동북아 정세로 미·중의 전면적인 대립구도가 심화될 전망으로 트럼프행정부에서 추구하는 과거 '위대한 미국의 회복'과 중국의 2017년 9월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된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몽 실현'이 역내의 근본적인 대립구조로 규정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의도적인 센카쿠 점속수역 진입과 일본 영해 및 영공 침범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그레이 존 위협에 대한 일본의 양보없는 대응 역시 강화될 전망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가변적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지속적인 충돌과 대결을 양산하고, 역내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일대일로에 따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의 친중국행보 및 이와 경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의 관계 강화 등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국면이 형성되었는데, 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형성된 북한 핵의 새로운 해결 노력이 지속되어, 남·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를 통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동북아 정책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동북아 정책 기조는 「자국 우선주의」와 「신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 자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추구를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을 위한 동맹국과의 안보공약 및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국이익의 우선 추구를 관련국과의 마찰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대중 정책으로는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를 통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하고자 일본 호주와의 동맹 및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일 정책으로는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 의거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에 걸친 지속적인 안보협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반도 정책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FFVD 방침 및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며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의 동북아정책으로 정책 기조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

남북 관계, 미북간 핵 협상 진척에 따라 달라질 것

설」과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역내 안정적인 발전기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대일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가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 없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미정책으로는 중국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는 주동자위의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실리적인 판단에 따른 절충적 행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일 정책은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대결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러 정책으로는 미국주도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공동 반대자로서 역내 및 유엔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반도 정책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틀 안에서 머물도록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본의 동북아정책으로 정책기조는 미·일동맹의 강화 속에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책과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적극적 추진으로 중국부상 견제하며, 두 바다와 두 대륙을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장기적 경제발전 및 전략적 우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지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정책으로는 미·일동맹의 강고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동지분을 가진 협력자로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다자기구 구성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을 확대할 전망이다. 대중 정책으로는 강력한 미·일 동맹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며, 영토갈등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정책은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을 통한 영토 문제 해결 및 향후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동방정책에 따른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에 대비한 안보정책의 추구 가능성이 상존한다. 대한반도 정책으로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남치문제 쟁점화를 통한 당사자화 노력을 할 것이며, 역사 및 영토문제 등 우리나라와의 마찰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으로 정책기조는 푸틴의 총선 승리와 친위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통한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를 도모하며,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악화 회색과 극동개발을 위해 아시아 중시의 신동방정책 및 아태지역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대미 정책으로는 미·러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초래된 서구와의 신냉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협력의사 표명 등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내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빚어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 추구 가능성이 있다. 대중정책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협력 및 상하이 협력조직,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포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등 다자 협력체제를 통한 중·러 협력 확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일정책으로는 서방과의 관계경색, 미·러 관계 교착에 대한 돌파구로 대일관계의 활용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옵션 중 하나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 러시아, 북한의 3국 공동 철도, 에너지, 전력연결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여 한국과의 향후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미-북·남-북간 쟁점

대북제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가 검증을 통해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최근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대북제재는 북한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부정이며 전쟁이나 다툼없는 적대행위로 간주”하면서 북핵 폐기 단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신뢰 조성이 비핵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전선언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였고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하였으나 작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은 완전한 북핵 폐기후 제재해제 등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제재해제 등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면서 1차 미·북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을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의 문제는 10·4 선언 당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했지만 결국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다음 정부에서 쉽게 남북 합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준 동의에 반대하여 판문점 선언은 비준되지 않았다.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월23일 정부가 비준을 하였다.

남북 협력

정부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많은 남북 간 접촉과 합의는 한국과 미국의 조야로부터 우려가 야기되고 있어 미국은 한국이 대북제재 전선을 이탈, 남북간 협력을 가속화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2019년 한반도 안보정세

금년도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미북 간 핵문제 해결 위한 협상의 진척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만, 남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에 대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4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해로서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외 경제지원의 계기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등 대외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2차 정상회담 이전에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회담에서 신고·동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할 것을 예상된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때 핵 리스트 요구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상호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가 관건인데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떠한 결단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된다.

이러한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변수라면, 미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미·중 관계와 북·중 관계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요컨대 금년에 미·북간 핵문제 해결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 상황은 평화무드였던 작년과는 달리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간, 미·북 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각국이 처해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미·북 간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수요와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변화 발전을 위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심사항으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 개최 장소는 미정이지만 2월말에 실시하기로 합의되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나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 서울답방과 관련해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답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자위대 초계기 사격관제레이더 조준 갈등 관련해서 일본 측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우리 군함을 향해 저공비행을 일삼는 등 갈등 봉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행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여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자료출처 : 세종연구소·극동문제연구소·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리 : 호국인보국〉